

문화관광 인사이트

제 123호

문화·관광 인사이트
제123호
2018. 08. 30
발행처-한국문화관광연구원
www.kcti.re.kr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 활용 및 개선방안

권태일 | 통계평가센터 부연구위원¹⁾
박소영 | 통계평가센터 사업전문원²⁾

1 들어가는 말

정부는 2018년 7월 11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발표한 '관광 진흥 기본 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과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추진 계획'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 마련 및 성과 측정을 위해서는 지역의 관광수요 현황을 정확하고 시의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지역 관광통계 생산 및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지역별 주요 관광지점의 내·외국인 방문객 현황을 월별로 파악할 수 있는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의 역할은 지역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본 통계는 주요관광지의 관광객 집계방식 개선(13년) 이후 지역의 대표관광지가 제외되면서 일시적인 지점 축소현상이 있었지만 각 지점별로 정확한 집계방식을 적용하여 통계를 생산함으로써 통계의 신뢰도는 증가했다.³⁾ 관광지점에서 직접 집계한 실측자료를 활용하

는 입장객통계는 객관적인 방식으로 집계된 신뢰성 있는 데이터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수립 및 평가, 관광객 수요추정, 관광시설 공급판단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더불어 다양한 차원에서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의 ① 현황과 다양한 활용사례 등에 대해 살펴보고 ② 해당통계의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 현황 및 문제점

■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 연혁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제113005호)되어있으며, 해당관광지의 방문객 수 집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행정 보고하는 보고통계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통계대상지 등록 및 데이터 수집, 공표까지 기초지자체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통계는 1974년 1월 「관광객 이동현황 보고」로 최초 통계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04년 「관광지 방문객 보고통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2년 통계청 사

1) tikwon@kcti.re.kr, 02-2669-8902

2) sympark@kcti.re.kr, 02-2669-8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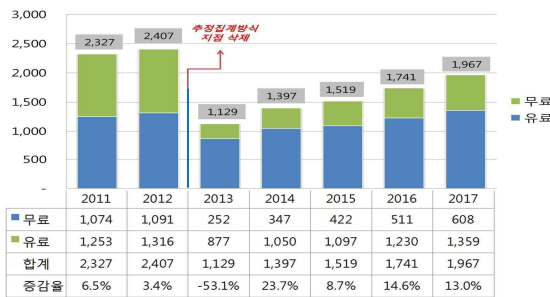
3) 2013년 통계청 변경승인 시 추계 방식의 객관적 입증 요구로 인해 지역의 대표 무료 관광지(해운대, 경포대 등)는 집계지점에서 제외됨

무개선 요구로 집계가 불명확한 관광지점은 통계 대상지에서 삭제되었으며, 통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2013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로 변경되었다.

■ 최근 5년간 주요관광지점 수 변화

추정방식 집계 관광지점이 삭제된 2013년을 기점으로 전체 조사대상지가 53.1% 감소하였다. 특히 무료지점의 경우 객관적으로 집계 가능한 지점⁴⁾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2012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다. 통계변경 승인절차에도 불구하고 다음해인 2014년 23.7% 증가한 268개 지점이 추가 등록되었으며, 2015년에는 8.7%, 2016년에는 14.6%, 2017년에는 13.0%로 최근 5년간 관광지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1 | 연도별 조사대상 관광지점 수 변화



신규관광지점은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지자체의 관광지점 신규 등록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통계가 일부 기초단체의 성과지표로의 활용, 주요관광자원 발굴 및 지역관광활성화 등의 이유로 관광지점 등록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으로 무인계측기를 도입하여 등록하는 사례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둘째 관광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주요관광지점이 과거 전통적인 관광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으로 확대되면서 각 지자체를 대표하는 주요관광지점 역시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로 새로운 유형(도보관광코스, 체험형 관광지, 체험마을 등)의 관광지점⁵⁾의 신규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4) 국가승인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주요관광지점 통계대상지는 입장권, 무인계측기, 예약 등 객관적인 집계방식을 통해 관광객 수를 증빙할 수 있는 지점만을 선정하고 있음. 무료대상지의 중 무인계측기집계의 경우 중복집계 우려가 없는 지점만 승인이 가능하여, 해수욕장, 계곡, 등 개방형 관광지는 승인 불가
5) 최근 3년간 오토캠핑장, 레일바이크, 자전거길, 루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스카이워크 등 새로운 유형의 관광지점이 등록되고 있음

■ 2017년 주요 결과

광역시도별 관광지점 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경기도가 327개소로 가장 많은 관광지점이 등록되어있으며, 전라남도(304개소), 강원도(254개소), 경상북도(253개소) 순으로 관광지점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년 평균증감률은 인천광역시가 1.5배로 가장 높았고,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순으로 관광지점 등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 | 광역시도별 주요관광지점 관광지점 수 최근변화(단위 : 개소)

| 지역 | 2015 | 2016 | 2017 | 증감률 (15~17) |
|---------|-------|-------|-------|-------------|
| 서울특별시 | 14 | 14 | 14 | 0.0% |
| 부산광역시 | 6 | 7 | 7 | 16.7% |
| 대구광역시 | 19 | 23 | 25 | 31.6% |
| 인천광역시 | 19 | 38 | 48 | 152.6% |
| 광주광역시 | 27 | 41 | 44 | 63.0% |
| 대전광역시 | 10 | 12 | 17 | 70.0% |
| 울산광역시 | 14 | 22 | 32 | 128.6% |
| 세종특별자치시 | 5 | 5 | 5 | 0.0% |
| 경기도 | 238 | 303 | 327 | 37.4% |
| 강원도 | 231 | 251 | 254 | 10.0% |
| 충청북도 | 125 | 133 | 149 | 19.2% |
| 충청남도 | 103 | 126 | 139 | 35.0% |
| 전라북도 | 117 | 118 | 159 | 35.9% |
| 전라남도 | 224 | 256 | 304 | 35.7% |
| 경상북도 | 191 | 211 | 253 | 32.5% |
| 경상남도 | 146 | 151 | 160 | 9.6% |
| 제주특별자치도 | 30 | 30 | 30 | 0.0% |
| 총 계 | 1,519 | 1,741 | 1,967 | 29.5% |

2017년 기준으로 관광지점 1개소 당 평균입장객수는 서울(1위) 123만 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2위) 116만 명, 제주(3위) 54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2 | 광역시도별 개소당 평균입장객 수 최근 변화(단위 :명)

| 지역 | 2015 | 2016 | 2017 |
|---------|-----------|-----------|-----------|
| 서울특별시 | 1,148,750 | 1,301,184 | 1,230,156 |
| 부산광역시 | 951,145 | 1,109,741 | 1,165,659 |
| 대구광역시 | 345,664 | 478,822 | 467,200 |
| 인천광역시 | 151,845 | 125,439 | 135,117 |
| 광주광역시 | 192,151 | 162,508 | 152,907 |
| 대전광역시 | 480,070 | 406,198 | 420,540 |
| 울산광역시 | 130,038 | 118,226 | 161,624 |
| 세종특별자치시 | 117,093 | 120,256 | 123,177 |
| 경기도 | 267,639 | 241,231 | 233,787 |
| 강원도 | 154,484 | 159,001 | 163,191 |
| 충청북도 | 146,254 | 145,968 | 159,634 |
| 충청남도 | 181,863 | 178,608 | 173,927 |
| 전라북도 | 253,500 | 262,722 | 232,560 |
| 전라남도 | 177,179 | 167,129 | 167,078 |
| 경상북도 | 186,202 | 186,961 | 187,550 |
| 경상남도 | 235,396 | 246,934 | 239,846 |
| 제주특별자치도 | 569,298 | 598,578 | 546,183 |

■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 문제점

- 울산 방문객 106만 명... 관광도시 '도약'(세계일보 17.5.8.)
- 지난해 관광객 5079만 명 전남 주요관광지 다녀가(뉴스원 18.4.30.)

본 통계는 개별관광지점에 대한 입장객 집계자료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 관광총량으로 활용할 수 없다. 일부 지자체에서 해당 통계를 지역 총량으로 오인하여 사용한 사례가 있다. 본 통계가 전국의 모든 관광지점이 필수적으로 등록되어야 하는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총량으로 활용하는 것은 통계를 잘못 이해하고 오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총량으로 오인하여 활용할 경우 등록지점이 많은 지자체의 입장객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오류가 발생한다. 이에 지역별 평균입장객 수를 제공하여 지역별 관광객 현황 및 추이를 파악하고 있다.

3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 활용

■ 지자체의 관광객 유치정책 수립 시 활용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는 지자체의 관광객 유치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방문의 해 사업,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등 기초 및 광역지자체의 관광객 유치정책에 해당통계가 반영되었다. 이로 인해 2017년 방문의 해 대상지역인 전북, 울산과 올해의 관광도시로 지정된 기초지자체⁶⁾의 경우 해당년도에 신규 등록된 관광지가 전년대비 증가하기도 하였다.

■ 관광정책 및 사업추진 성과지표로 활용

정부기관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통계가 관광정책 및 사업추진성과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유료관광지점 방문객 수가 내부 성과지표로 쓰이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여행주간 사업에서는 주요 성과지표로 활용되었다.

한가위 문화여행주간, 주요 지역관광지 방문객 증가
- 작년 추석 전후 열흘 대비 주요 관광지 방문객 59.6% 증가
▲ 유료관광지 중 방문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곡성 섬진강 가차마을로서 52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전남 순천 드라마 촬영장(507.6%), 전남 순천 낙안읍성민속마을(402.7%)이 뒤를 이었다.
<문체부 보도자료 2017.10.17. 내용 발췌>

6)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충남 공주시, 경북 고령군, 인천 강화군과 2019년 울산 중구, 경기 안산시, 전남 강진군의 경우 최근 3년간 신규관광지점 신청 개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민간의 사업개발계획 수립 시 활용

해당통계는 민간사업자 지역 내 사업 및 관광개발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사업제안 시 본 통계에서 제공된 테마파크 이용객 수를 수요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전남 영광군의 경우 주변지역의 관광객 추이 파악을 통해 타시설의 입지 요건을 검토한 사례가 있다. 본 통계의 활용 및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①오용 발생을 줄이고 ②신뢰성, 시의성, 활용성 있는 통계생산을 위해, 추진 가능한 통계 개선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4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 개선방안

■ 신규지점 등록 및 통계공표 절차의 간소화

통계의 시의성 제고를 위해, 신규관광지점 등록 및 통계공표의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업무절차 간소화를 위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 명확화 및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광역지자체의 업무변화가 요구된다. 광역지자체에서 1차승인 절차를 거친 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종승인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시간이 일부 단축될 수 있다. 현재 일부 광역 지자체의 경우 관광지점 선정 및 관리, 철저한 데이터 검수가 진행되어 객관적 자료제출, 오류 데이터 미 발생 등 해당지자체의 통계생산 시간이 단축된 사례가 있다. 추가적으로 신규관광지점 승인의 경우 해당통계 담당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통계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다.

■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통계교육 실시

통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통계의 올바른 활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 및 보도자료 등에서 해당통계를 오인하여 활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통계를 오인하여 활용된 경우를 확인하고 있으며, 해당지자체에 공문발송 및 정정보도 요청, 유선 상 안내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또한 매년 진행되고 있는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 지자체담당자 교육을 통해 통계오용 및 올바른 통계활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하고 있다. 교육 참여는 담당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지자체는 배포된 자료를 통해 해당정보를 제공받는다. 통계오용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담당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필수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정보의 지속적 공유 및 담당자 교육 참여 의무화 등 지속적 통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지점확대를 통한 통계의 활용성 제고

국가승인통계로서 객관성 있는 통계표본의 구축 및 관리는 통계생산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통계의 활용성 및 시의성 제고를 위해 통계대상 관광지점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지자체에서 신규관광지점을 발굴·등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관광지점 등록이 지자체 담당자의 판단 및 등록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다수로 미포함 된 관광지점을 검토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및 인센티브 적용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관광지점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노력이 요구되며 관광통계에 대한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후순위 업무로 인지되고 있는 관광통계가 관광산업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통계활용도 및 유용성 제고를 위해 무료관광지점 확대를 위해 객관적 집계방식 활용(무인계측기, 무료입장권 발권기 설치, 내부시설별 입장객 집계 등)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무료관광지점의 경우 관광지 관리 차원 및 지속적인 관광개발을 위해서라도 객관적 입장객 수 집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현재 항몽유적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추사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시립민속박물관(광주광역시 북구) 등의 지점은 무료입장권을 발권하여 입장객 수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개방형관광지로 집계가 어려운 해수욕장의 경우 샤워장 이용객, 해수욕장 입장권 발권, 내부시설별 입장권수를 활용하여 집계하고 있다. 선형사례를 통해 무료관광지점 등록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객관적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타부처 혹은 타기관의 국가통계 연계활용을 통해 통계대상지 확대를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 지자체통계연보, 국립공원기본통계,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리시스템(RUCOS), 연안통계 등 객관적인 집계로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 연계를 통해 미등록 관광지점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통계제공 범위의 세분화를 통한 통계품질 향상

통계 활용도 증진 및 통계품질향상을 위해 현재 주요관광입장객 통계에서 제공되는 항목(7) 이외 공표된 데이터의 세분화된 분석 및 활용이 필요하다.

첫째, 입장객수 별로 관광지점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통해 같은 군에 속하는 관광지점 분포 및 비교 분석 등 통계를 세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3 | 입장객 수 별 관광지점 현황 예시(단위: 개소, %)

| 관광객수(년) | 지점수 | 점유율 | 주요지점 |
|--------------|-------|------|---|
| 0~5만명 미만 | 805 | 40.9 | 풍산개미울(경기안성시), 상소오토캠핑장(대전동구 구암서원(대구중구), 목계나루(충북충주시)) |
| 5만~10만명 미만 | 371 | 18.9 | 장방사(충북제천시), 항몽유적지(제주제주시), 벽방산(안정사)(경남통영시), 소울원(경기파주시) |
| 10만~50만명 미만 | 597 | 30.4 | 제주돌문화공원(제주제주시), 깃바위(대구동구 통일전망대(강원고성군), 무의도(인천중구)) |
| 50만~100만명 미만 | 106 | 5.4 | 전주동물원(전북전주시), 천제연폭포(제주서귀포시) 창경궁(서울중로구), 부산이쿠아리움(부산해운대구) |
| 100만명 이상 | 88 | 4.5 | 에버랜드(경기용인시), 광명동굴(경기광명시), 경복궁(서울중로구), 순천만국가정원(전남 순천시) |
| 총 지점 수 | 1,967 | 100 | |

둘째, 유형별로 관광지점을 분류하고, 유형별 상위지점의 분기별 방문객 수 추이 등 현황자료를 생산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대표관광지점 추이 및 유형별 관광객 수 분포 등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관광지점 패널로 2년 이상 유지 가능한 관광지점을 선정하여, 동일지점에 대한 관광지점 증감률, 평균입장객 수 비교 등 세분화된 통계정보들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세분화된 통계자료의 시각화(인포그래픽, 카드뉴스, 웹툰 등)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통계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에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는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 데이터의 지도 시각화, 인터랙티브 그래프 기능 등 시스템 내 신규 시각화 기능 도입을 통해 해당통계의 다차원적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문화체육관광부(2012), 관광지방문객보고통계 개선방안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집권태일 이수진(2016),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에 관한 고찰, 투어고인사이트 제1호

7) 현재 지역별 관광지점, 내외국인 입장객 수, 유형별 관광지점(유·무료 및 관광자원 분류)의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음